
고갈되어가는 칠레의 정치경제 모델

오스발도 토레스

칠레 중앙대학교 교수, 인류학자

원제와 출처: Osvaldo Torres G., "Chile: economía política del *desgaste*", *Nueva Sociedad*, No. 266, noviembre-diciembre de 2016, pp.72-83.

핵심어: 좌파,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칠레, 중남미, 라틴아메리카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의 개별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도착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낡은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그 질문은 치열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들의 명분과 이익이 상충하는 한 그것은 권력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분쟁(선거전이나 텔레비전 토론에서 아무리 적게 비취진다 하더라도)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공적 공간에서 집단적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의 정치가 국제 금융시장 앞에서 약해질수록 시민들은 정치권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힘들어짐을 인식하고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

라틴아메리카는 정치적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넘어서서 신자유주의 사회로 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민영화, 비정치화, 국가개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 신좌파는 갈 곳을 잃었다. 브라질의 노동자당(Partido de los Trabajadores, PT)과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 FPV)의 실패, 칠레의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의 개헌 국민투표 패배,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결렬 등의 사건들이 좌파의 정책적 결함으로 인한 시민으로부터의 지지 상실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두 개의 핵심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발전 모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다. 국제 시장에서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신좌파 정부들은 대규모의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했고, 정부 보조금이나 교육, 공공보건, 주거 정책에 대한 투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양극화를 줄이는 데에 실패했고, 국외 자본이 라틴아메리카에 강요한 1차 산업 위주의 자연 파괴적 개발정책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실패했다. 이런 상황은 칠레 경제학자 아니발 핀토(Aníbal Pinto)가 분석했던 “좌절된 개발”을 떠올리게 한다.

정치 체제에 관해서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말을 상기해볼 만하다. 선거에서 각각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하더라도 그것은 “몇몇 개인, 적극적인 소수, 엘리트, 지도자들의 효율성, 영향력, 설득력, 즉 그들의 합리성, 사실성 혹은 구체적 기능성을 측정”¹⁾하는 지표이다. 즉, 표의 숫자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 나아가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신좌파적

1) 안토니오 그람시(A. Gramsci), 「대의정치체제에서의 숫자와 특징」(El número y la cualidad en los regímenes representativos), 『앤솔로지』(Antología), 마누엘 산크리스탄(Manuel Sacristán) 편역, Siglo XXI, 멕시코시티, 1970, p. 398.

정책에 대해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라틴아메리카 신좌파 정부들이 실천해왔던 민주주의란 “민중의 정부”가 아닌 “정치인의 정부”²⁾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와 다름없다.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그들의 담론과 국정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었음을 뜻하지만,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면 사회모델 및 국가개발전략 논쟁에 있어 지지의 기반을 잃게 된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우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현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과연 소득을 재분배하고 정치와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 주체는 누구일까? 소득수준의 향상과 교육 범위 확대를 통해 중산층 인구를 늘리면서, 노동자 계급의 태도를 바꾸려는 논의가 많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소비자 정체성과의 문화적 전쟁이기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의 훌륭한 역사 주체인) 산업 노동자 계급이 쇠퇴하면서, 정책, 정부 사업, 유토피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사회적 집단들까지 사라졌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20세기를 통해 진행돼온 “역사적 주체”에 대한 논쟁이 좌파 정당과 신좌파 정당의 근본적 차이를 일부 설명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 질문이 지금도 유효하다. 농민들이나 도시 빈민층에 전략적 역할을 부여했던 이들도 있었고 신중산층에 전략적 역할을 부여했던 이들도 있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역사적 조건과 시점에 행동에 나서며 새로운 사회조직 형태를 구성하는 집단적 주체는 이론적인 논쟁과 상관없이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는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좌파 정부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칠레가 헤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필요

2) 호세 누(J. Nun), 『민주주의, 민중의 정부인가 정치인의 정부인가?』(*Democracia. ¿Gobierno del pueblo o gobierno de los políticos?*), FCE, 부에노스아이레스, 2002.

가 있다. 민영 연금(AFP)이나 민영 의료보험(Isapre)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칠레 경제를 좌우하는 기업들은 고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과 네트워크를 가진 초국가 그룹에 회사를 합병시키거나 팔아버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타국으로 투자처를 옮기고 제품을 팔기 위한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 공여지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칠레에서 재화와 서비스 시장은 완전히 자유화되었다. 대기업 규제는 사실상 형식적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도 약하다. 지난 1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은행 및 금융기관 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e Instituciones Financieras)이 아닌 피해자들에 의해 드러난 주주 및 개인투자자 대상 대형 사기 사건이 최소 5건이다.

과도한 자유화는 대가를 낳고 있다. 시민들은 기업의 횡포를 깨달아 가고 있다. 대기업 사회는 피라미드 사기, 탈세, 좌우를 막론한 불법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해외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란칠레(LAN Chile)는 미국과 아르헨티나에서 칠레제지(Compañía de Papeles y Cartones)는 콜롬비아에서). 여기에 칠레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을 비롯한 국제 경제의 침체, 그리고 교육시스템 소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세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 더해진다.

이런 상황은 독재기에 도입되어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개발 모델이 고갈되어 감을 반증한다. 하지만 이것이 최후의 위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1차 산업 위주의 발전모델은 “초기 자본축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광업, 펄프·제지업, 연어가공업 도급업자들의 불안한 고용과 해외 투자와 임산업 보조금에 의존하는 과도한 자연 개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초기에 축적된 자본의 상당 부분은 노동조합(노동자의 18%만 조직화 되어 있음)의 약화, 자본의 횡포에 대한 항의나 정치적 결속을 지원하지 않았던 정당들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1차 산업 투자에 대한 환경보호적 제재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가능했다. 이러한 경제 논리의 고갈은 “벌거벗은 시장 임금님”으로 수렴된다. 시장의 부패, 불평등, 부당이윤, 부정은 대중들에게도 명백히 드러났고, 시민들은 다양한 동기로 인해 길거리, 심지어 마을이나 영토를 점거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외치고 있다. 첫째, 기업가, 정치인, 종교인, 군인, 로비스트를 막론하고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일부 계층이 과도한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둘째, 엘리트들은 민중에 대한 정당성을 잃었고 지배 체제에는 균열이 생겼다. 셋째, 대기업-정치인 뇌물 스캔들이 반증하듯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중도좌파와 우파를 모두 휩쓸었고 대의제의 위기는 심화하였다.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여론은 몹시 악화하여 시민들의 불신이 정치와 의회에 서 기업 과점체제 자체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지식인은 엘리트의 죽음³⁾을 선언하고 정치체제 정당성의 위기를 말했지만, 여전히 대안이 없는 상태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즉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정권은 모든 이들을 대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빈사 상태가 성공적인 경제 모델과 빈곤 감소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사회적 공동체 의식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칠레는 개혁주의자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이 주도하는 권력의 재구조화를 시작하였다. 기업가들과 정파를 아우른 정치인들의 개혁에 대한 반응을 보았을 때,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는 과거 콘서트타시온(Concertación)을 만들었고 현재는 공산당(Partido Comunista)과 함께 누에바 마요리아(Nueva Mayoría)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들까지 폭넓고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엘리트들은 “과거의 성공” 덕분에 지탱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사수하고 “합의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3) 알베르토 마욘(A. Mayol), 『부검: 칠레 엘리트들의 사인(死因)은 무엇인가?』(*Autopsia. ¿De qué se murió la élite chilena?*), Catalonia, 산티아고, 2016.

이는 선거체제와 다양한 국가기구(헌법재판소, 국가 텔레비전 위원회 등)에서 과잉 대표로 인해 소수의 거부권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엘리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치화한 복합적인 요구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은 이미 2006년에 그 조직력과 정치화의 정도를 보여준 바 있다. 학생들은 대규모로 또 지속적으로 거리에 나와 높은 교육비를 성토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 내 좌파는 중도파 및 우파와의 합의하에 학생의 재정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현 교육구조를 피상적으로 수정하려 했으나, 학생들과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 폐기되었다.

학생들은 2011년에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독재 이후 첫 우파 정부인 세바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 정부 하에서였다. 경험을 쌓은 학생들은 더욱 조직화된 방식으로 시위를 전개했고 이 운동은 1990년 이래 최고의 정당성을 획득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학생운동에 앞서 환경, 영토, 성정체성과 관련한 시위들도 있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이런 시위대들 뿐 아니라, 시위대의 요구에 근거를 제공하며 그들의 열망을 정치적 목표 수립, 정책 비판 또는 정책 제시로 바꿔낸 새로운 비판적 지식인층에 의해서 더욱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운동이 활발해지며 지역주의 운동(Punta Arenas, Aysén, Calama), 환경운동(Hidroaysén 댐, Maipo 협곡, Puelo 강), 성적 다양성 운동(동성결혼 법제화, 낙태 비범죄화)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시민 사회를 재활성화하며 불통 정권에게 “거리의 목소리”를 듣고 부름에 답하라 요구하였다. 사회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자유주의의 완전무결성과 시장 중심적 “해답”을 위기에 몰아넣었고, 시민의 참여 없이 수립된 기술 관료적 위기 대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패가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오고 사회보장정

책 또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칠레 사회운동의 핵심 주도자들은 계속 바뀌었고 덕분에 5년이 넘게 참여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 모을 수 있었다. 어느 시점에는 교육 문제가 화두에 올랐고 다른 시점에는 교육이, 연금 체계가, 여성 인권이 그러했다. 지난 10월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여성 혐오 살인에 항의하며 시위했다.

오늘날 사회운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할지라도 정치적 의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잘 구조화하고 정치화한 운동은 칠레학생연맹(Confech)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운동과 새로운 연금모델구축을 촉구하며 150만 명 규모의 전국행진을 3회(2016년 7월, 8월, 10월) 추진한 No+AFP(민영연금 반대)운동이다.

학생운동은 과격한 60년대 좌파를 비롯해 다양한 조류의 영향을 받았다. 60년대 좌파는 다양한 좌파 단체들의 기원이 되었으나 이러한 단체들은 급진적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뜻을 합하지 못했다. 학생운동 참가자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지도부는 피노체트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중산층 출신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No+AFP의 참가자들도 다양한 계급과 세대를 아우른다. 그들은 개인연금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노동자, 사용자의 삼중 기여 시스템, 그리고 세대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사회보장 개념의 연금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No+AFP는 지도부가 좌파의 전통 아래에 있긴 하나 정당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칠레 사회 운동의 가장 큰 취약점은 노동조합이 처한 현재 상황이다. 노조들은 전국노동조합조직위원회(Coordinadora Nacional Sindical)를 통해 1980년대 반독재 운동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시민회의(Asamblea de la Civilidad)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노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운동이 결집했다. 피노체트 불신임을 이끌어낸 1988년 국민투표에서도 노동조합의 활약이 컸고 같은 해 칠레노동

자총연합(Central Única de Trabajadores, CUT)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민주화 이행기 동안 그들의 리더십은 약해져서 핵심 지도자 중 일부는 의회로 진출하였고 나머지는 종신직으로 노조에 남았다. 최근 20년 동안 CUT는 정권들의 지원을 받으며 민주당 연합에 협조하는 그저 그런 조직이 됐다.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당시의 두 노동 개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CUT의 취약성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사례는 올해 8월의 임원 선거다. 부정행위, 간접투표, 지연 개표에 따른 불신으로 점철된 이번 선거는 칠레의 핵심 노동조합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칠레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지는 않지만, 과거 사회 운동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그 상징성과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언제나 중요했다. 하지만 변화의 시기에 노동조합은 새로운 시나리오에 맞춰 진화하는 데 실패했다.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사회운동은 임업 기업과 “칠레 개척자들”에 대항해 무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마푸체(Mapuche)족의 결집이다. 개척자들은 1883년 침략을 자행해 원주민의 토지를 차지하고 20세기에는 법에 의거한 “원주민 재판”을 열어 토지 찬탈과 사기 매매를 범했다. 이 운동은 점점 더 구체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정치 프로젝트들을 통해 분열하는 모순을 겪었다. 이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 시스템에 반영하는 데 있어 하나의 당파적인 대표성이 존재했던 1990년대 이전의 운동들과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는 좌파 정당들의 사회운동 관련 정책들이 일조했다. 정당 조직들은 “우리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논리를 따르는 듯하다. 따라서 현재 칠레 좌파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슈는 좌파가 민주주의 이행기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분파-민주운동당(Movimiento Democrático Popular, mdp)과 범좌파사회주의당(Partido Amplio de Izquierda Socialista, pais)을 구성했던 칠레공산당(Partido Comunista, pc), 혁명좌파운동당(Movimient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mir), 사회당(Partido Socialista, ps)의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중 봉기를 통한 급진적 반독재운동 전략을 추진했고 의회(Asamblea Constituyente)와 함께 임시정부를 구성하려 투쟁했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힘을 잃었고 피노체트의 반대세력 탄압으로 실행 불가능하게 되었다. 인민연합(Unidad Popular)이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패배했음을 읽은 ‘재건 좌파’는 큰 조직적 기반 없이도 핵심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 연설 및 중앙 정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행사했다. 사회당이 통합되고 칠레민주당(Partido por la Democracia, PPD)이 창설된 이후 좌파 내부에선 기독교민주당이 초반에는 다수당으로서, 1997년 이후엔 중도 좌파 연합의 일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시기에 콘세르타시온⁴⁾ 외부의 좌파는 선거에서도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없었다. 2005년의 선거에서 훈토스 포데모스 마스(Juntos Podemos Más: 칠레공산당, 인본주의당(Partido Humanista) 및 기타 정당의 연합)는 5.4%를 득표했다. 선거구당 2명의 당선자를 뽑는 2석제 선거 시스템하에서 그들은 의석을 차지할 기회가 없었다. 이 계열의 좌파는 칠레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에 별 효과 없는 선동적 비판 연설을 펼쳤다. 이들은 2011년과 그 이후의 사회운동에서도 비슷한 행보를 반복한 끝에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었고 존재감도 없어져 버렸다.

이행기 정부들에 참여했던 좌파는 사회참여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의 민주화 전략은 긴장이나 파열이 아닌 설득과 동의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회적 요구를 풀어내는 동시에 기대에 부응할 만한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다음 세 가지 이슈를

4) 칠레공산당, 인본주의당, 녹색생태환경당(Partido Ecologista-Verde)

중심으로 얹힌 정치적 매듭은 풀지 못했다. 권위주의적이고 제한된 민주주의 시스템,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회에 대한 요구와 가톨릭교회와 기업이 지지하는 보수주의의 충돌, 마지막으로 소득, 영토, 교육, 보건의 양극화가 그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 내 좌파들은 1차 산업 위주의 경제 모델과 시장 헤게모니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좌파는 정부 지출과 정책을 통해 사회보장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이런 무비판적인 포지션은 “인간의 얼굴을 한 대처주의”⁵⁾가 대두된 유럽 좌파의 재구성 시기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80년대에 노동조합이 붕괴하였고 이후 노동당이 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수아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정부가 1983년 긴축통화정책⁶⁾으로 전환한 바 있다. 문제는 칠레 정부 내 좌파들이 1997년부터 “안주”와 “채찍” 논쟁에 묻혀있었다는 것이다. 사회당 내에서 좌파 정책의 대표성 위기가 일었던 2009년까지도 그 논쟁은 지속했다.

좌파의 엘리트화는 에두아르도 프레이(Eduardo Frei)가 콘세르타시온의 대선 후보가 되며 정점을 찍었다. 당원들이 참여적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시민들은 공약 불이행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었으나 지도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대선 후보를 지명했다. 이에 앞서 이미 대중교통과 보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고 2006년에는 학생 시위도 있었다. UN 개발 계획(UNDP)도 시민들의 불만, 권력의 부패, 국정 운영방식이 야기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해 여러 편의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었다. 좌파의 자유주의적

5) 에른스트 힐브란트(E. Hillebrand),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위기」(La crisis de la socialdemocracia europea),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 No. 261, 1-2/2016, <www.nuso.org>

6) 카트치크 데어고우가시안(K. Der Ghoghassian), 「냉전 이후의 좌파」(La izquierda después de la Guerra Fría),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 No. 261, 1-2/2016, <www.nuso.org>

헤게모니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2009년 말의 대선이었다. 세 명의 지도자가 사회당을 나와서 대선에 출마했는데, 전 당대표이자 전 장관인 호르헤 아라테(Jorge Arrate)가 6.2%를 득표했고, 전 하원의원 마르코 엔리케스-오미나미(Marco Enriquez-Ominami)는 20.1%를 득표했으며, 전 상원의원 알레한드로 나바로(Alejandro Navarro)는 결국 출마를 철회했으나 신당을 창당했다. 사회 양극화와 미흡한 민주주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대통령 권한에 대한 프레이의 진단과 공약이 나머지 두 후보의 것과 비슷했는데, 이는 “독립 200주년 기념” 헌법 개정에서 참여·직접 민주주의의 형태가 보장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 시기에 정당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팽배했으며 새로운 정책뿐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었다.

2009년 선거에서 좌파의 패배는 이론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지지도 않았으며 좌파 내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우파 기업인 세바스티안 피네라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준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아지고 그녀가 다시 정부로 복귀할 여건을 마련해주었다.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칠레가 한계에 다다랐고 정치·경제적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형태 안에서 자유와 평등의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진단을 공유했다. 그녀는 정치적 균형은 맞추되 당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 경제 실무팀을 꾸렸으며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공약들을 내걸었다. 이 팀은 정치적으로 개혁주의적이었고 옛 콘세르타시온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세대교체를 도모했다.

그러나 부분들의 합이 하나의 단일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 정부는 세계 개혁을 승인했고 교육과 노동 개혁도 승인했다. 이 개혁들의 기획과 추진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에게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집권 연합 내에 정치적 소모전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석제 선거 시스템을 청산했고,

우파가 20년 동안 두려워했던 재외 칠레 국민의 투표도 인정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바첼레트의 개혁은 이미 효력을 다한 시스템을 통한 너무 늦은 시도일 수도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관한 UNDP의 최신 보고서에도 드러나는데,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장치와 부패한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이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정당과 그 대표자들에 대해서는 강한 냉담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칠레에서는 시민들의 정치화가 정당과 단절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 체제를 재편하는 데 있어 이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래의 정치에 대해 민주적 논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는 의회가 정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좌파들이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는 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

10월 23일의 지방 선거는 칠레 선거 역사상 최고 수치인 65%의 기권율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도 좌파는 상징적인 선거구들을 잃고 득표수뿐 아니라 자치단체장 자리들도 잃었다. 놀라운 것은 칠레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발파라이소에서 31세의 호르헤 샤르프(Jorge Sharp)가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전 학생회장이자 변호사이며 좌파 자치주의운동(Movimiento Autonomista)의 리더인 샤르프는 진보적 시민운동의 지지에 힘입어 현 우파 시장과 누에바 마요리아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었다.

2017년 대선에서 새로운 연합 정당이 형성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누에바 마요리아의 외부에서 좌파 성향 유권자들을 유혹할 대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독교민주당이 사회당과의 연합, 즉 바첼레트 정부의 개혁에 대해 중도주의적 거부권으로 중도좌파 연합을 지탱해온 것을 저버릴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모델이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쇠하는 상황에서

좌파들은 사회정의, 민주화, 개인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약을 정교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 좌파들이 먼저 뜻과 의지를 통합해야 할 것이다.

김보영 옮김

